

수퍼메이저의 신사업전개(1)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International Oil NEWS

1. ExxonMobil

ExxonMobil 탄생과정

Exxon과 Mobil은 1998년 12월에 합병을 발표, 1999년 5월에 양사 주주총회, 1999년 10월 EU위원회, 같은 해 11월에 미국연방거래위원회의 합병승인을 거쳐, 1999년 11월부터 수퍼메이저 'ExxonMobil(Exxon Mobil Corp)' 이 발족했다. 인수금액은 480억\$, 세계최대 거대기업이 탄생한 것이다. 1996년 8월 Mobil과 BP의 유럽 하류부문 제휴는 Exxon과 Mobil의 합병에 의해 해소되었고, 2000년 2월에 EU위원회가 승인했다. 2001년 현재 총자산은 1,431억 7,400만\$, 총매출액은 2,134억 8,800만\$, 순이익은 153억 2,000만\$에 달한다. 2001년 종업원수는 97,900명이다.

Exxon의 설립자인 John. D. Rockefeller가 Standard Oil Company of Ohio를 설립한 것은 1870년, Mobil의 전신 Vocume Oil Company의 설립은 그보다 빠른 1866년인데, 1882년에 Standard Ohio를 축으로 Standard 석유 트러스트가 결성되고, 그 일환으로 Exxon의 전신 Standard Oil of New

Jersey와 Mobil의 전신 Standard Oil of New York 이 발족했다. 1911년의 anti trust법 시행에 따라 Standard 석유티러스트는 34개사로 분할, 이 가운데 Standard New Jersey(Exxon), Standard New York(Mobil), Standard California(Chevron), Standard Indiana, Standard Ohio의 구 Standard 계열 5사와 Atlantic Oil, Continental Oil은 모두 독립회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Standard New Jersey는 1973년에 Exxon Corporation으로 사명을 바꿨다. New York Standard와 Vocume Oil은 1931년에 합병하여 Soconi Vocume, 1955년에 Soconi Mobil, 1976년에 Mobil Corporation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 2개사의 Mega merger에 의해 '올트라 수퍼메이저'인 ExxonMobil Corporation이 탄생한 것이다.

수익 · 투자동향

ExxonMobil의 2001년 순익(세금 공제후)은 특별비 항목과 합병효과를 빼고 153억 2,000만\$로 2000년의 177억 2,000만\$를 13.5% 밑돌았다. 2000년의 영업실적은 Mega merger를 마무리하고 1999년 11월에 출범한 ExxonMobil이 합병 직후에 기록한 사상 최고이익이다. 1999년 Exxon과 Mobil의 합산 순익

은 79억 1,000만\$이기 때문에, 2001년은 2000년보다 이익이 감소하기 했으나 여전히 높은 이익 수준이다. 2001년의 총매출액은 2,134억 8,800만\$이며, 매출액 이익률은 7.2%. 2000년은 매출액 2,327억 4,800만\$, 매출액이익률 7.6%로 이익률은 작년에 비해 그다지 손색이 없다. 단, 2001년 4/4분기 수익은 26억 8,000만\$로 작년 동기의 52억 2,000만\$보다 48.7% 감소해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미테러사건 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매출액은 473억\$, 작년 동기가 643억 4,300만\$이니까 4/4분기의 매출액이익률은 5.7%이다. 작년 동기의 8.1%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부문별로 보면, 200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의 순익은 146억 5,600만\$로 2000년의 157억 8,700만\$ 보다 7.2% 감소했다. 줄어든 것은 상류부문의 조업수익인데, 미국 국내가 45억 4,500만\$에서 39억 3,200만\$로 13.5%, 미국 외가 78억 2,400만\$에서 64억 9,700만\$로 17.0% 감소했다. 반대로, 하류부문의 조업수익은 미국 국내가 15억 6,300만\$에서 19억 2,400만\$로 23.1%, 미국 외에서는 18억 5,700만\$에서 23억 300만\$로 24.0%나 증가했다. 화학부문 조업은 미국 국내가 6억 4,400만\$에서 3억 9,800만\$로 38.2% 감소하고, 미국 외에서는 5억 1,700만\$에서 4억 8,400만\$로 6.4% 감소해 모두 이익이 감소했다. 기타 부문의 조업수익도 5억 5,100만\$에서 4억 8,906만\$로 11.3% 줄었다.

ExxonMobil의 원유와 NGL 생산량은 세계전체에서 2001년에 254.2만b/d(2000년은 255.3만b/d), 천연가스 생산량은 102억 7,900만입방ft/d(103억 4,300만 입방ft/d), 석유제품판매량은 797.1만b/d(799.3만b/d), 정유공장 처리량은 557.1만b/d(564.2만b/d)이다.

자본탐광지출은 2001년에는 123억 3,300만\$에 달한다. 2000년의 111억 6,800만\$보다 10.4% 웃도는 규모로 중국 Sinopec 권의 구입분을 제외하면, 작년

보다 17% 이상 증가했다. 상류부문 투자는 2000년보다 27%나 늘었다. 2002년에는 상류부문을 중점으로 투자를 10% 정도 늘릴 계획으로 향후 투자이익은 왕성하다.

상류부문

ExxonMobil은 세계 50여 나라에서 상류부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2001년의 상류부문 수익은 전년 대비 15.7% 밀돌았지만, 104억 2,900만\$(123억 6,900만\$)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 국내가 13.5% 감소한 39억 3,200만\$(45억 4,500만\$), 미국 외에서 17.0% 감소한 64억 9,700만\$(78억 2,400만\$)이다. 미국 국내보다 미국 외의 수익이 크게 줄었지만, 미국 국내보다 미국 외의 수익이 여전히 크다.

2001년말 현재 보유 확인매장량은 원유가 114억 9,100Bbl(2000년말 현재 115억 6,100만Bbl), 천연가스가 55조 9,460억입방ft(55조 8,660억입방ft). 1년 전보다 원유는 7,000만Bbl 줄었지만, 천연가스는 800억입방ft나 늘었다. 원유생산량은 254.2만b/d로 2000년의 255.3만b/d에 비해 0.4% 감소했다. 지역별 생산량을 보면, 미국 71.2만 b/d(73.3만b/d), 캐나다 33.1만 b/d(30.4만b/d), 유럽 65.3만 b/d(70.4만b/d), 아시아태평양 24.7만 b/d(25.3만b/d), 아프리카 34.2만 b/d(32.3만b/d), 기타 미국 외 25.7만 b/d(23.6만 b/d)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태평양의 생산량이 떨어졌고, 아프리카와 기타 미국 외에서 늘어났다. 천연가스 생산량도 2000년말 103억 4,300만 입방ft에서 2001년말에는 102억7,900만 입방ft로 0.6%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 25억 9,800만 입방ft(28억5,600만 입방ft), 캐나다 10억 600만 입방ft(8억 4,400만 입방ft), 유럽 45억 9,500만 입방ft(44억 6,300만 입방ft), 아시아태평양 15억 4,700만 입방ft(17억 5,500만 입방ft), 기타 미국 외에서 5억 3,300만 입방ft(4억 2,500만 입방ft). 미국과 아시아태평양의 생산은 감소했고 캐나다, 유럽, 기타 미국 외에서의 가스 생산은

늘어났다.

ExxonMobil은 세계 거의 모든 주요 탐광·생산지역에 진출해 있는데, Gulf of Mexico, 서Africa알바다, Caspian Sea 등 최근 개발지역에 주도적인 지분을 갖고 참가하고 있다. 발견이 끝난 석유·가스 자원은 석유환산 700억Bbl, 약 5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탐광지역에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잠재성이 높은 신규 광구의 대부분은 수십 1,350ft를 넘는 해저에 있지만 현재 ExxonMobil은 총면적 9,500만acre를 넘는 800개 가까운 심해 광구에 권익을 갖고 계약을 체결했다. 심해 지역에서의 개발 cost 경감에 큰 역할을 하는 Hoover Diana도 개발했다.

2000년에는 Gulf of Mexico의 크레지 호스 지역, 카자흐스탄령 카스피해의 카샤간 외에, Angola알바다에서도 몇 개의 발견에 성공했다. 2001년에도 대형 project에 참가하여 Kazakhstan의 카샤간, Bolivia의 Itau, Australia 북서대륙붕, Nigeria 남서부의 봉가, Angola의 광구15에서 유망한 탐광을 계속 발견했다. 이 부분은 확인매장량의 추정치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 부분을 가산하면, ExxonMobil의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은 석유환산 720억Bbl에 달한다.

하류부문

ExxonMobil은 26개국에서 46개 산하 정유공장에서 조업하고 있고, 원유정제능력은 630만b/d, 운할유 base Oil 제조능력은 15만b/d 이다. 118개국에 약 43,000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고, 거의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 운할유를 판매하고 있다. 하류부문의 조업수익을 보면, 2001년에는 42억 2,700만\$에 달해 작년의 34억 1,800만\$보다 23.7% 증가했다. 미국 국내에서는 23.3% 증가한 19억 2,400만\$(15억 6,100만\$), 미국 외에서는 24.0% 증가한 23억 300만\$(18억 5,700만\$)이다. 미국 국내, 국외 지역 모두 하류부문에서 이익이 늘었는데,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 실적이 좋았다.

2001년의 원유처리량은 557.1만b/d 이다. 2000년의 564.2만b/d보다 1.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184만b/d(186.2만b/d), 캐나다 44.9만b/d(45.1만b/d), 유럽 156.3만b/d(157.8만b/d), 아시아태평양 143.6만b/d(146.2만b/d), 기타 미국 외 28.3만b/d(28.9만b/d)인데, 이들 지역 모두 예외 없이 처리가 순조롭다. 캐나다, 카리브 해역, 중미, 칠레, 이집트,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에서 250개 이상의 신설 주유소를 이미 Open했다.

화학·기타부문

ExxonMobil은 석유·천연가스 부문 이외에도 석유화학, 석탄, 광물, 전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사업은 세계적인 leading company중 하나로 약 200개 나라와 지역에서 자회사가 조업중이다. 기초화학제품, 고기능제품, 폴리머 등을 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2001년 8월에는 Virginia주의 ExxonMobil Research & Engineering Co.(EMRE)와 Houston에 있는 Merichem Chemicals & Refinery Services (MCRS)가 분해 휘발유를 수첨처리해서 탈황하는 신기술을 공동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탈황기술과 그에 따른 기술 서비스는 EXOMER(SM) 마크로 특허를 신청했다.

Houston을 본거지로 두고 있는 Exxon Mobil Coal and Minerals사의 계열기업이 2개 대륙에서 석탄과銅을 생산하고 있다. 석탄은 전력회사가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銅은 세계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다. ExxonMobil은 발전사업에 30년 넘게 종사하고 있고, IPP(독립발전사업자)의 선구자적 존재이다. 미국 국내와 Hong Kong에서 조업하고 있는데, Hong Kong최대 발전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Oil Report, 2002. 9. 23)

2. Royal Dutch Shell Group

그룹 형성과정

Royal Dutch Shell group은 Mega Merger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90년대 후반에 철저한 하류부문 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미국 내 체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했다. 1997년에는 미국내 자회사 Shell Oil이 미국 서부와 중서부에서는 Texaco, 동부에서는 Texaco와 사우디 ARAMCO 합작회사 Star Enterprise와 하류부문 업무를 제휴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미국의 일부 판매사업을 Equilon과 Motiva로 분리, 경쟁력을 강화했다.

2002년 2월에는 Equilon이 Texaco가 보유하고 있는 44%의 권익을 취득하여, Saudi Refining과 함께 Motiva에 50%씩 출자해 합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Texaco권익의 인수총액은 21억\$에 달한다. 2001년말 현재 Royal Dutch Shell group의 총자산은 1,115억 4,300만\$, 총매출액은 1,772억 8,100만\$, 순이익은 108억 5,200만\$에 달한다. 이들 모두 ExxonMobil 다음 가는 규모이다. 2001년의 종업원수는 91,000명으로 1년전 보다 1,000명 늘었다.

Shell의 설립자 마커스 새뮤얼이 런던에서 동방무역업자로 업무를 시작한 것은 1830년, 로스차일드가 지배하는 부니트社로부터 러시아산 등유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1897년에는 새뮤얼 상회의 석유부문을 흡수해 Shell Transport & Trading Co.가 탄생했다. 1890년에는 또 하나의 원류인 Royal Dutch Petroleum이 Netherlands에 설립되어, 화란령 동인도제도의 Sumatra동해안 생산 원유 정제를 위해 건설한 팡카라 브란단 정유공장을 거점으로 아시아 수출용 제품수출에 착수했다. 1907년에 Shell Transport와 Royal Dutch가 합병하여 탄생한 것이 Royal Dutch Shell

group이다.

수익 · 투자동향

Royal Dutch Shell의 2001년 순이익은 108억 5,200만\$, 2000년의 127억 1,900만\$ 보다 14.7% 감소했다. Adjusted CCS(최신의 구입원가를 반영한 공급 cost 예측에 근거한 수익으로 특수 credit이나 지불을 제외한 수익)으로는 2001년 순이익은 120억\$이다. 2000년의 131억\$를 8.4% 밀돌았지만, 역대 2번째의 높은 수준이며, 석유제품부문과 탐광·생산부문에서는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Royal Dutch Shell group은 다른 메이저와 같은 대형 합병을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1998년 restructuring plan이 마무리되어 51억\$에 달하는 cost개선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테러사건의 영향으로 2001년 4/4분기 순이익은 19억 900만\$로 작년 동기의 35억 7,900만\$보다 46.7% 감소했다.

Royal Dutch Shell group의 탐광·생산부문 순이익은 2000년의 94억 3,600만\$에서 80억 4,700만\$로 14.7% 감소했다. 생산량은 1998~2001년 사이에 연평균 4%로 늘어 380만b/d 정도로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에 의해 이익이 감소했다. 가스생산부문에서는 순이익이 2000년의 7억 5,300만\$에서 2001년에는 12억 1,700만\$로 늘었다. LNG 생산량도 2000년의 750만 ton에서 2001년에는 890만ton으로 18.7%나 증가해 과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하류부문에서는 석유제품부문 순이익이 2001년에는 세계 전체 기준으로 33억 7,700만\$에 달했다. 2000년의 30억 3,800만\$보다 11.2%나 늘어나 이 또한 사상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화학부문 환경은 어려워 순이익은 2000년의 9억 2,500만\$에 비해 2억4,100만\$로 대폭 감소했다.

Royal Dutch Shell의 투자액은 2001년에는 117억 8,100만\$를 기록해 전년의 85억 3,700만\$를 38.0%나 웃돌았다. 2002~2003년에도 2001년을 약간 웃도는 투자를 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 회로부터 승인이 끝난 Texaco로부터 미국 내 하류부

문시설 취득 cost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류부문

상류부문에서 Royal Dutch Shell group은 1세기 이상 세계 각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생산하고 있다. 세계 45개국 등에서 탐광·생산권익을 보유하고 있고 staff는 약 3만명에 달한다. 2001년 현재 총종업원수는 91,000명으로, 거의 3분의 1이 탐광·생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활동대상은 계약 협정책정, 탐광, 탐사, 굴착, 시굴결과 평가, 생산·개발계획입안, 생산조업과 보수, 조업종료시의 폐광·처분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이다.

2001년 자본탐광개발지출 117억8,100만\$(2000년 85억 3,700만\$)중, 80억\$(48억 3,900만\$)이 탐광·생산부문에 지출되었다. 작년도보다 65.3%나 증가해 투자액 전체중에서 67.9%나 차지하고 있다. 탐광·생산부문 투자액의 지역별 내역은 유럽 11억 4,300만\$(9억 3,500만\$), 기타 동반구 28억 6,100만\$(11억 5,300만\$), 미국 17억 4,100만\$(10억 2,700만\$), 기타 서반구 11억 3,000만\$(6억 8,600만\$)이다. 동반구의 탐광·생산투자 증가가 눈에 띈다.

2001년에는 Gulf of Mexico의 Brutus와 Philippines의 Malampaya의 2대 심해 project가 조업을 시작했다. Nigeria와 Brazil에서는 탐광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Nigeria 앞바다의 봉가 남서(Bonga SW)에서는 2001년 기준 세계 최대 탄화수소 발견에 성공했다. LNG 지분 판매수량은 2001년에는 19% 증가했다. 액화공장의 지속적인 확장이나 미국수입시설의 권익 취득에 의해 LNG 분야에서는 주도적인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고 필립 와츠 회장은 2001년 결산 발표 때 강조했다.

2001년에는 New Zealand의 Fletcher Challenge Energy(FCE)와 미국의 McMurry Energy Co.를 인수했다. FCE 획득에 의해 Shell group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록키산맥에 확인 가

스매장량을 보유하는 McMurry社 인수는 group의 가스함유사층 개발기술의 know-how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Shell group은 중동에서는 이집트, 이란, 오만, 사우디, 시리아, UAE에서 예전부터 합작사업을 해 오고 있다. 이란에서는 국영 이란석유회사 때문에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걸프 북부의 Soroosh와 Nowrooz 유전의 재개발작업을 실시중이다. Soroosh 유전은 2001년 11월에 예정대로 생산을 시작했다. Kuwait에서는 북부광구개발의 partner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Saudi Arabia에서는 2001년에 Shaybah 주변이 유망한 가스 개발 project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South Ghawar의 가스개발 project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Shell group은 사우디 국내에서는 194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어, partner와 함께 70억\$ 이상을 투자해 왔다. 신규 사업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천연가스 생산·판매에서는 방향족이나 황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GTL(Gas to Liquids)이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배기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Shell group은 자사가 개발한 Shell Middle Distillate Synthesis(SMDS) process를 사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SMDS를 채택한 공장은 이미 8년전부터 Malaysia에서 조업하고 있고 세계각지에서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領 티모르해 앞바다의 Sunrise gas 전 개발계획에서는 해상에서 가스를 액화하는 Shell의 기술이 채택될 듯 하다. 가스전에 입지한 세계최초의 부유식 천연가스 액화시설로 가스를 육지까지 압력을 가해 pipeline을 통해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천연가스 액화기술로는 채산에 맞지 않는 가스 개발이 가능하다. 부유식 LNG 시설은 Africa 남부 Namibia 앞바다의 가스전 개발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류부문

Shell group의 주유소는 전세계적으로 약 46,000 개에 달한다. 이 판매망을 통해 자동차연료, 음료수, 식료품, 여행관련 용품 등 기타 자동차를 수단으로 하는 이동에 필요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일 brand 로는 세계최대 소매업자로 세계 전체의 소매판매망은 McDonald의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하가 작은 Shell Pura, Shell Optimax, Shell V-Power 등 신상품 발매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1년의 석유제품부문 투자액은 15억 1,800만\$로 2000년의 15억 6,500만\$보다 3.0% 감소했다.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9%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에 6억 5,500만\$(작년 4억 5,400만\$), 기타 동반구 3억 4,200만\$(3억 8,800만\$), 미국 300만\$(-), 기타 서반구 4억 6,200만\$(4억 1,600만\$) 등 대유럽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정제부문에서는 세계 50여개국 정유공장에 출자하여 여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2001년에는 석유제품 판매부문의 영업실적은 순조로웠다. 특히, 미국과 독일간에 체결된 대형거래에 의해 Shell의 share는 상승했다. 미국 하류부문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가 Shell과 Texaco의 주식이동거래를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정제·판매 합작사업 주체인 Motiva와 Equilon에 대해 Texaco와 Saudi Refining(SRI)과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미국 내 Shell group의 기반은 강화되었다. 2002년 2월에 Shell은 Equilon이 Texaco가 보유하고 있는 44%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이 회사의 전액 출자회사가 되었다. Shell과 SRI가 Motiva의 Texaco보유 주식을 취득, 50대 50의 절반출자회사가 탄생했다. 유럽 최대 석유 제품시장인 독일에서는 RWE-DEA와의 신규 합작사업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Shell의 독일 내에서의 하류부문 사업은 확대된다.

2001년의 투자액은 화학부문이 7억5,100만\$(9억 4,100만\$)로 작년보다 20.2% 줄어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9,700만\$(2억 9,000만\$), 기타 동반구가 5,300만\$(5,700만\$), 미국이 5억 1,300만\$(3억 3,600만\$), 기타 서반구가 2,200만\$(4,300만\$) 등이다. 미국 이외의 지역 투자는 격감하고 있어 미국 shift 현상이 두드러진다. 화학 부문은 2001년에는 수익이 감소해 base chemical, 석유화학제품, 폴리올레핀 등을 세계 각지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다.

Gas & Power 사업 투자액은 2001년에는 8억 1,000만\$(2000년 4억 8,300만\$)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럽에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 기타 동반구가 5,000만\$(3,800만\$), 미국이 3,400만\$(1억 4,600만\$), 미국 이외의 동반구가 2억 2,900만\$(1억 400만\$). 격증하고 있는 지역은 미국 이외의 동반구, 즉 아시아 지역이다.

Gas & Power사업에서는 처리시설이나 수송 infrastructure에 대한 투자를 통해 천연가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으로는 LNG, pipeline건설, GTL 등이 포함되어 있고, 산업용이나 민생용으로 천연가스와 전력을 판매하고 있다. trading나 IPP의 건설·조업도 실시한다. 중국·광둥성에서 진행중인 대형석유화학 complex 건설 project는 Shell, 중국해양석유회사, 광둥개발투자회사의 합작사업인데, 2002년 중에 용지를 조성하여 2003년에는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LNG공급 부문은 2001년에도 크게 성장했다. 나이지리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LNG plant 확장공사가 진행중이다. Australia에서는 북서 대륙봉 project의 증강 허가를 받았다. Shell이 68% 출자하고 있는 InterGen은 2001년 중에 미국, 영국, 호주, 중국 4곳에서 신설 발전소 운전을 개시했다. InterGen은 사업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미국 텍사스주에 Gas Pipe Line을 갖고 있는 자회사인 Tejas Gas를 매각하는 협정에도 합의가 성립되었다. ☯

(Oil Report, 2002. 10. 7)

화학·가스 & 전력